

효과적인 인문학 교육은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로부터

신 응 철*

차 례

1. 머리말
2. 인문학의 위기와 현실, 그리고 대응
3. 인문학 연구·교육의 새로운 한 방법론으로서 해석학적 문화비평
 - 1) 인문학에서의 문화 개념과 문화연구의 필요성
 - 2) 해석학적 방법론을 통한 문화비평
 - 3) 문화이해를 통한 인간이해에로
4. 맺음말

1. 머리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21세기 사회를 일컬어 흔히들 디지털 매체의 시대 혹은 문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지나오면서 그에 따른 삶의 양식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학문하는 방식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해 학문 연구의 방법론이나 연구 관심사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례로 인문학(Humanities)(특히 철학)의 경우에 국한해서 언급해 보면, 고전적인 의미의 인문학의 개념으로써는 정보화사회 혹은 문화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말하자면, 그간 진행해 온 인문학 연구의 주제나

*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학술연구교수

방법론이 현실 상황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거나 해결할 자구책을 마련해 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최근 국내에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문학의 위기 상황은 인문학 내부에서 자초한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때문에 이 같은 점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인문학의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진지하게 검토해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고, 또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활성화되어야만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인문학 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예비단계의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정보의 시대 혹은 문화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인문학(철학)의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전체의 논의에서 전제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탈출하고 나아가 인문학 연구·교육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체 구상을 위해서 우선 현대 디지털매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인문학의 위기 상황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인문학 연구·교육의 새로운 한 방법론으로서 해석학적 문화비평(解釋學的 文化批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서는 인문학에서 문화의 문제와 문화연구의 관련성을 문화비평가, 매체비평가, 해석학자들의 견해를 빌어 논의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해석학적 방법론을 통한 문화비평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후, 인문학의 연구·교육에서의 궁극 관심사인 문화이해에서 인간이해에로의 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제시한 해석학적 방법론을 통한 문화비평이 인문학 분야의 연구·교육에 있어서 왜 긴급하게 요청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논의가 지니는 의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2. 인문학의 위기와 현실, 그리고 대응

국내 인문학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 대처 방안이 인문학의 내·외부에서 매우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선 인문학 진영 내부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00년 5월 30일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에서 “새천년과 인문학의 방향”이라는 선언문¹⁾을 통해서 김대중 정부의 정책 당국과 대학 당국, 그리고 인문인들에게 인문학 진흥을 호소한 바가 있다. 또한 전국 4년제 대학 인문학연구소들의 협의체인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에서는 “인문학 육성 지원을 촉구하는 우리들의 결의”라는 선언문²⁾을 발표하였으며, 그리고 이 단체에서는 2000년 10월 20일 기관지인 『인문비평』을 창간하여 우리나라 인문학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보 지식 사회와 인문학”이라는 주제의 특집 심포지엄의 내용을 실고 있다. 이듬해인 2001년 10월 18일에는 『인문비평』 제2호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국내외 인문학의 동향에 대해서 긴급 진단하고, “과학과 인문학, 그 협동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 내용을 실고 있다. 2002년 9월 30일에는 『인문비평』 제3호를 발간하였으며, 여기에는 “인문학의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이라는 주제의 특집 심포지엄 내용을 실고 있다.

한편, 인문학 진영의 외부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는 1999년 3월 15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초대회장 김영진)³⁾를 출범시켰고, 2002년 1월 31일 인문사회연구

1)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 『인문비평』 창간호, 월인, 2000, 320-322쪽 참조.(이하 『인문비평』으로 표기함.)

2) 『인문비평』 창간호, 323-325쪽 참조.

회 산하 ‘인문정책연구위원회’(초대위원장 김려수)⁴⁾가 구성되어 인문학 진흥과 인문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2001년 4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문위원회인 ‘기초학문육성위원회’(초대위원장 정대현)⁵⁾가 구성되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투자하여 기초학문의 기반 구축과 연구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기초학문육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인문학의 위기 상황은 우리 사회 전체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정부 차원의 정책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인문학 연구의 내부 진영, 특히 인문학자들은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백승균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인문학의 위기론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인문학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기보다는 인문학의 인프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⁶⁾ 이와는 달리, 이상규는 인문학의 내적 위기를 말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의 세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 인문학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 중심, 연구자 집단의 폐쇄성으로 인해 사회의 급박한 변화 상을 인문학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 현행 학부제 하의 대학교육의 문제점, 대학간 서열화, 학과간 서열화 현상으로 인해 인문학의 퇴조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점, 셋째 지식인의 역할 축소와 대학의 사회적 기능의 변화로 인해 인문학이 퇴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⁷⁾

한편 도정일은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김영

3) 『인문비평』 창간호, 336쪽 참조.

4) 『인문비평』 제3호(2002), 13쪽 참조.

5) 『인문비평』 제3호(2002), 293-297쪽 참조.

6) 백승균,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인문비평』 창간호(2000), 16-17쪽 참조.

7) 이진우외, “우리나라 인문학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인문비평』 창간호(2000), 39-61쪽 참조.

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경쟁과 생존의 논리, 무한경쟁시대의 논리, 대학의 시장논리, 그러니까 시장 전체주의(Market totalitarianism)의 이데올로기에 대학도 예외가 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인문학의 위기는 이와 같은 외적 요인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⁸⁾ 도정일의 입장을 요약하면, 한국의 인문학을 위협하는 외적 요인들의 작용 순서는 세계 단일체로의 시장체제의 심화→ 그 체제에 적응하려는 단위 국가의 생존논리→ 대학에 가해지는 변화의 바람 등이다. 내적 요인의 작용은 외부 상황 변화의 반사회적, 반인간적 성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대학의 무의식→ 적응주의의 자발적 채택→ 인문학 자체의 약세 등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은 한갓 학원의 지위로 전락하게 되었고, 교육은 취업준비로 변질하고, 대학의 목표는 시장에의 봉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김영민은 한국 사회에서의 인문학 위기의 실체는 ‘앓과 삶의 소외’에 있다고 진단하기도 한다.⁹⁾ 그에 따르면, 현실은 엄연한 한국의 상황인데, 강단의 언어는 외국어이며, 현장은 처연하게 땅 위에 누워 있는데 강단의 언어와 처방은 외국으로 하늘을 날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외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 가야하며, 둘째, 지나치게 외국의 수입 담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문학 연구의 선배와 동료 학자들이 이룬 지적(知的), 문화적 성취에 각별히 주목하고 평가해 주며, 셋째, 수입된 원전과 대가(大家), 그리고 학문성과 논문의 형식에 대한 타율적 강박과 식민지적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와 지형에 어울리는

8) 도정일, “정보-지식-사회, 그리고 한국 인문학”, 『인문비평』 창간호(2000), 65-77쪽 참조.

9) 김영민, “우리 근대성과 인문학의 과제”, 『현대사상』 제2호, 민음사, 1997년 여름, 248쪽 참조.

학문성의 내실을 키워야 하며,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근대성의 숙성 과정에 인문학이 맡아야 할 소임을 따져 보자고 제안한다.¹⁰⁾

국내 인문학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김영민의 제안 이외에도 정수복은 ‘새로운 글쓰기’를, 정과리는 지식인들이 대중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김상환은 지식인들간의 연대, 학문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 결속, 상호 협조와 이해의 도모를, 도정일은 우리의 인문주의적 관심을 시장 가치와 경쟁 논리에 지배되는 사회 환경 자체의 비인문학적이고 비인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¹¹⁾ 그리고 최종덕은 현실과 이론의 분리에서 비롯된 인문학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제간 프로그램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학문의 폐쇄된 고유 논리를 개방시키고, 나아가 내가 하는 학문이 주변 학문의 문맥과 지역과 세계의 문맥에 통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검토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의 공동교수 과목(Team Teaching Class)의 활성화와 대학원 과정에서의 ‘인지과학협동과정’과 같은 제도화된 학제간 연구의 강화를 제안하기도 한다.¹²⁾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국내에서 인문학의 위기는 단순하게 인문학자의 위기라든가, 인문학 자체만의 위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위기이고, 인간의 위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문학적 가치를 유지하고 전승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며, 그 인간을 가르치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위기

10) 김영민, 같은 글, 253-254쪽 참조.

11) 도정일, 김상환, 정과리, 정수복, “무엇을 할 것인가? 문명사적 전환기, 인문학의 전망과 과제”, 『현대사상』 창간호, 민음사, 1997년 봄, 29-64쪽 참조.

12) 최종덕, “학문의 위기와 학제간 프로그램이라는 작은 대안”, 『21세기 대학 교육과 인문학의 전망』(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협의회), 도서출판 역락, 1999, 145-164쪽 참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인문학 내부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아울러 동시에 다양한 대처방안들에 관한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연관하여, 유초하는 인문학의 위기는 실상 인문학의 기회라고 주장한다.¹³⁾ 말하자면, 인문학을 위기로 몰고가는 가장 큰 요인이 말폐에 이른 자본주의 사회의 지식/정보/기술에 있거나 그것들과 관련된다고 할 때, 그것들 자체가 곧바로 인문학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필자는 유초하의 설득력 있는 관점처럼, 인문학의 위기를 인문학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일이다. 필자는 이 새로운 방법론을 “해석학적 문화비평”이라 부르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우선 인문학 연구에 있어서 ‘문화’ 개념의 위치, 그리고 문화연구의 실상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현실,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시대 혹은 문화시대의 속성과 특징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이를 토대로 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을 논의 하도록 하겠다.

3. 인문학 연구 · 교육의 새로운 한 방법론으로서 해석학적 문화비평

1) 인문학에서의 문화 개념과 문화연구의 필요성

2000년을 전후로 한국 사회에서는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 미디어의 시대, 문화 시대 등의 용어들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13) 유초하, “인문학의 내재적 효용과 미래적 임무”, 『인문비평』 제3호(2002), 31쪽 참조.

런 용어들의 사용 빈도만큼이나 상대적으로 인문학의 위기라는 표현도 늘 함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먼저 현대 디지털 매체 시대의 특성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자. 매체비평가이자 문명비평가로 유명한 맥루한(Herbert Marshall McLuhan 1911-1980)¹⁴⁾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비교적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기에, 여기서 잠시 그의 논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사회적 행위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動因)에 관심을 가졌던 맥루한은 인간이 사회나 문화와 맺고 있는 관계를 자신의 매체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맥루한의 매체이론은 기술과 인간이 맺는 관계, 특히 기술에 의한 인간 감각의 변화라는 측면과 그로 인한 사회의 변화라는 두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맥루한은 매체(medium)를 ‘인간 감각의 확장’(extensions of the senses)이라고 규정한다.¹⁵⁾ 그에 따르면 모든 매체는 인간의 특정한 감각을 확장시킨다. 예컨대, 옷은 피부의 확장이며, 인쇄 매체는 눈의 확장이며, 라디오는 귀의 확장이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눈과 귀의 확장이다. 이때 확장이란 특정 감각 기관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수단과 기재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맥루한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기존의 감각 균형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인간의

14) 1997년에 창간된 『현대사상』은 맥루한의 사상을 기획 특집으로 싣고 있다. 김경용의 “마셜 맥루한 이해; 이론과 은유 사이에서”, 김균의 “마셜 맥루한의 커뮤니케이션 사상”, 마크 포스터의 “버추얼 보드리야르 또는 마셜 맥루한의 달성되지 못한 유산”, 루이스 래팜의 “영원한 현재”, 더글러스 러쉬코프의 “현대 미디어 스페이스의 풍경”, 손동수의 “웹 매거진들을 징검다리처럼 밟고 건너며”가 수록되어 있다. 『현대사상』 창간호, 민음사, 1997. 66-204쪽 참조바람.

15)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McGraw-Hill, 1964), 8-9쪽 참조.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 (박정규역),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18쪽 참조.

의식을 변화시킨다고 말한다.¹⁶⁾ 또한 맥루한의 주요 주장들 가운데 하나인 ‘매체가 메시지이다’(The medium is the message)¹⁷⁾라는 주장은, 특정 매체로 인한 인간 감각 균형의 재조정으로 야기되는 의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매체의 의미는 인간과의 만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이때 인간은 매체로 인하여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 변화 자체를 맥루한은 메시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맥루한은 매체가 인간의 감각과 맺고 있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핫미디어(hot medium)와 쿨미디어(cool medium)로 나누어 분석하기도 한다. 핫미디어는 전달하는 정보의 정세도가 높아서 사용자의 낮은 참여도를 요구하는 매체(예컨대 라디오, 영화, 사진)이고, 쿨미디어는 전달하는 정보의 정세도가 낮아서 사용자의 높은 참여도를 요구하는 매체(예컨대 전화, TV, 만화)이다.¹⁸⁾ 물론 양자는 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맥루한이 이처럼 매체의 성격을 인간 감각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인간의 의식 및 행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매체가 의미의 독립적 전달자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인식과 사고를 형성하는 중요한 의미생성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맥루한의 지적은 바로 매체가 인간 정신의 구체적 표현이며, 그 자체가 의미 분석의 핵심적인 텍스트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¹⁹⁾ 때문에 매체는 자신의 언어와 문법을 가지고 있는 분석 대상이라는 맥루한의 인식은 매체 내용의 효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16) Marshall McLuhan, *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New York: Mentor, 1964), 281-282쪽 참조. 맥루한, 『구텐베르크 은하계 -활자 인간의 형성-』(임상원역),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1, 308-309쪽 참조.

17)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박정규역), 커뮤니케이션스북스, 1997, 23쪽 참조.

18) 맥루한, 같은 책(1997), 45-60쪽 참조.

19) 김균, 「마셜 맥루한의 커뮤니케이션 사상」, 『현대사상』 창간호, 민음사, 1997, 108쪽 참조.

(의사소통) 연구에 새로운 '매체해석학'의 가능성을 여는 방법론적 해안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²⁰⁾ 여기서 매체해석학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해석학이 자신의 논의 영역을 기존의 텍스트 해석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어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매체가 기술적 측면에서 마련한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의 잠재력이 실제 생활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해석학이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해석학의 논의 틀을 새롭게 변형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한편 맥루한은 인간의 역사를 매체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규명하기도 한다. 그의 설명방식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는 구어시대, 문자시대, 인쇄시대, 전기시대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주요 단계로 구분될 수 있고, 각 시대별 특징은 아래와 같다.²¹⁾ 첫 단계인 구어시대(oral age)의 사람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구두(口頭)로써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시각, 청각, 후각 등 오감(五感)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수 감각형이었다. 둘째 단계는 약 2천년 전의 한자(漢字)나 알파벳의 발명 이후부터 시작된 문자시대(literate age) 또는 필사시대다. 이때부터 차츰 사람들은 시각형(視覺形) 인간으로 변형되었지만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복수 감각형의 인간이 지배적이었다. 셋째 단계는 15세기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의 발명 이후부터 전기 매체가 등장하기까지의 약 4세기 동안의 시대(일명 구텐베르크 시대 Gutenberg age)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인쇄술에 의한 의사소통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사람들은 시각에 주로 의존하는 부분 감각형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는 선형(線形) 혹은 연속적 패턴을 띠게 되었으며, 인쇄 매체의 발달은 개인주의와 민족주의 경향을 촉진하게 되었다.

20) 김균, 마셜 맥루한의 커뮤니케이션 사상, 같은 곳.

21)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박정규역),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518쪽 인용. 맥루한, 『구텐베르크 은하계-활자인간의 형성-』(임상원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44-71쪽 참조.

마지막 단계는 20세기의 전기 매체 시대(electric age)다. 전기 매체의 발달로 세계는 점차 하나의 지구촌(global village)으로 발전하게 되어 인류를 과거의 구술문화가 우세한 시대로 복귀하게끔 만들었다. 말하자면, 전자 매체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시각적이기보다는 촉각적인, 파편적이기보다는 통합적인 성격을 가진 문자이전의 인간형을 부활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일종의 재부족화 현상이 일어나 사람들은 시각형 인간에서 복수 감각형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결국 맥루한에 따르면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전기 시대의 매체는 새로운 환경을 형성하여 인간의 감각 시각의 방식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인간의 전체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맥루한의 견해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매체 시대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의 논의에서도 나타나듯이, 현대는 매체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문자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멀티미디어로 대변되는 통신 혁명은 시각적 이미지의 호소력을 증대시켜 놓았고, 이는 결국 인문학의 고전적인 매체였던 글의 위상(문자의 위상)을 그만큼 더 축소시켜 버렸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종래의 인간 보편성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던 인문학은 자의든 타의든 새로운 흐름, 그러니까 문화연구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의 방식에서 진행되어 온 기존의 인문학 연구가 이제부터는 매체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로 인해 문자문화(文字文化)보다는 시각문화(視覺文化)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문화연구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강내회²²⁾는 문화연구는 문자문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大衆文化)의 발전이라는 토양 위에서 나타난 학문이며, 이는 그 동안 고전적 지식을 전수하려는 안이한 인문학적 관행에 대안적인 연구 틀로서 현실 참여적이며 구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

22) 강내회, 『지식생산, 학문전략, 대학개혁』, 문화과학사, 1998.

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학이 ‘문화’라는 사회적 현상에 관심을 돌린다는 것은 고전에서 실제 삶의 현장으로 연구 대상을 전환 혹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문자의 위기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²³⁾ 그런 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문화과학(文化科學)²⁴⁾은 국내의 인문학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인문학에서 문화연구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강내희는 현실 참여적인 문화연구가 무엇보다 지향해야 하는 구체화의 노력이 아직 국내에서는 담론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반성하면서,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문화연구를 촉구하기도 한다.²⁵⁾ 그런 측면에서 그는 인류학에서 개발되어 문화연구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참여관찰’(參與觀察)의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참여관찰은 연구대상에 대한 조사자의 개입이 불가피해서 가치 중립적인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3) 김용환, 「문화학에서의 인문학: 문화인류학적 제언」, 『인문비평』 창간호, 월인, 2000, 116쪽 참조.

24) ‘문화과학’과 연관된 자료는 다음의 것들이 국내에 소개되어 있다. 문화결정론적 시각과 유물론적 관점에서 문화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자료로는, Leslie A. White, *The Science of Culture: A Study of Man and Civilization*(번역본으로는 레슬리 화이트, 『문화과학-인간과 문명의 연구-』(이문웅역), 아카넷, 2002.)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론의 관점에서 문화의 생성과 전개, 미래상을 논의하고 있는 자료로는, Ernst Cassirer, *Zur Logik der Kulturwissenschaften*, Göteborg, Wettergren & Kerbers Forlag, 1942가 있고, 영역본으로는 Ernst Cassirer, *The Logic of the Humanities*, translated by Clarence Smith How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0이 있다. 문화과학의 논의를 문화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의 논쟁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논문으로는 신응철, 「문화해석의 두 입장-자유지론과 문화결정론의 논쟁-」, 『고전 해석학의 역사』(한국해석학회편), 철학과학현실사, 2002가 있다.

25) 강내희, 『지식생산, 학문전락, 대학개혁』, 문화과학사, 1998.

그런 이유에서 강내희는 그 대안으로 특히 기호학, 이데올로기 비판, 그리고 욕망과 쾌락의 연구가 문화과학적 방법론과 인식 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⁶⁾ 그런데 김용환은 강내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문화연구에서 양자(참여관찰 對 이데올로기 비판)의 방법론을 배타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이 양자를 보완적인 관계로 파악할 때 비로소 균형 잡힌 문화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⁷⁾

김용환의 설명²⁸⁾에 따르면, 19세기 후반부터 독립된 학문적 틀을 갖춘 인류학은 다양한 문화 현상들을 장기 체류의 ‘참여관찰’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문화진화론(文化進化論)의 견해에 대항하는 문화상대주의(文化相對主義)가 나타나게 되었고, 문화상대주의에 의거한 문화비평이 인류학에서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문화상대주의의 문화비평은 두 가지 조작과정²⁹⁾을 거쳐 이루어진다. 첫째는 낯선 문화를 친숙하게 만드는 과정(친숙화의 과정)이다. 이는 타문화의 고유한 논리나 가치관을 찾아내고, 이러한 문화적 잣대로써 그 민족을 이해하려는 과정이다. 둘째 과정은 이해된 타문화(他文化)의 관점에서 다시금 자문화(自文化)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과정(탈친숙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친숙한 자문화는 낯선 것이 된다. 이러한 조작과정에서 문화상대주의는 문화의 우열적 가치 측면에서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문화들 간의 서열을 매기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접근자세는 무엇보다 타문화를 무시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술(記述)할 것을 요구한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인문학의 대중문화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김용환은 주장한다.

26) 강내희(1988), 같은 책.

27) 김용환, 같은 글, 117쪽 참조.

28) 김용환, 같은 글, 118-119쪽 참조.

29) 김용환, 같은 글, 118-121쪽 참조.

그런데 문화상대주의는 문화비교를 통한 문화비평 과정에서 문화사대주의(文化事大主義), 원시문화(原始文化)의 동경, 혹은 자문화 우월주의를 배격하고, 또한 물질적 측면에서 문화를 선진적 혹은 후진적으로 구분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이는 문화가 물질적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집단의 정신적 창의성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문화상대주의는 자문화의 관점에서 타문화를 비평하는 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타문화의 관점에서 자문화를 비평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³⁰⁾ 왜냐하면 문화상대주의는 타문화의 입장에서 자문화를 객관화시킬 뿐이며, 이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상대적이라는 가치 중립적 시각에는 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김용환은 인문학이 적어도 규범적 학문인 이상, 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때 문화기술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 자체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비평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덧붙여서 이러한 문화비평에 있어서 객관적 잣대, 즉 인문학이 추구하는 인간 보편적 윤리와 가치관, 그리고 현대 및 미래 사회에 부합되는 인간상을 정립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³¹⁾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인류학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결국 철학이 이 문제를 떠맡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2) 해석학적 방법론을 통한 문화비평

이제 필자는 인문학에서의 문화연구, 특히 문화비평의 원리를 해석학적 방법론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비평에 있어서 ‘해석학적’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연구에 있어서 문화진화론과 문화상대주의의 관점³²⁾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

30) 김용환, 같은 글, 121쪽 참조.

31) 김용환, 같은 글, 124쪽 참조.

그리고 대체적으로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문화비평에 있어서 ‘해석학적’ 방식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에 근거한 문화비평은 철학적으로 볼 때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태동되어 나왔다고 할 수 있다.³³⁾ 상대주의(相對主義)는 객관주의(客觀主義)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이다. 그러면 먼저 객관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객관주의(Objectivism)란, 합리성이나 인식, 진리, 실재, 선, 옳음 등의 본성을 결정하는데 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영원하고 초역사적인 어떤 기반이나 구조 틀이 존재하며, 존재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입장이다.³⁴⁾ 객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기반이 존재하기에 철학의 과제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며, 가장 강력한 논거를 동원하여 자신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기반을 변호하는 데 있다. 객관주의는 토대주의(土臺主義)와 아르키메데스적인 점에 대한 추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객관주의자들은 철학, 지식, 언어를 엄밀하게 근거 지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회의주의(懷疑主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반면, 상대주의자들은 객관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주장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간다. 상대주의자들은 환원 불가능한 다수의 개념 도식들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개념들이 결정적인,

32) 김용환의 설명에 의하면, 문화진화론은 인류의 보편사를 재건한다는 전제하에서 다양한 문화들을 이성의 발달 정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서열을 매겨서 야만, 미개, 그리고 문명이라는 범주로 분류하는 입장이고, 문화상대주의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인류문화의 보편적 패러다임은 고사하고, 두 이질적인 문화의 공통된 패러다임이 존재할 수 없기에 타문화를 이해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용환, 같은 글, 118-119쪽 참조.

33) Richard J. Bernstein, *Beyond Objectivism and Relativism: Science, Hermeneutics, and Praxi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3.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 (정창호외 역), 보광재, 1996. 25-47쪽 참조.

34) 신응철, 『해석학과 문예비평』, 예림기획, 2001, 118쪽 참조.

일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상대주의자들이 볼 때, 예를 들어 ‘합리성’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때 사용되는 합리성의 기준이 ‘우리 자신의’ 기준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기준에 불과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우리가 상대주의자들의 인식방식을 따라 이러한 논의를 문화의 영역, 문화비평에 확대 적용하게 되면 문화상대주의로 귀착하게 된다. 이에 반해 우리가 객관주의자들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보편문화에 근거해서 개별문화를 논의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필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적어도 ‘인간의 세계에서’ 보편문화만 존재하지 않으며³⁵⁾, 다만 개별문화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자신의 개별문화 속에서 보편문화로 나아가려는 시도만 할뿐이다. 보편문화가 무엇인지? 어떤 형태인지? 그 모든 것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보편문화라는 것은 결국 문화 주체인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규정될 뿐이다. 그와 같은 노력의 강도와 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우리가 마주 대하는 세계문화의 양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와 같은 필자의 주장에 대한 해석학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하이데거(M. Heidegger), 가다머(H.G. Gadamer), 리콴르(P. Ricoeur)로 이어지는 현대 해석학의 전통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선판단(先判斷), 선이해(先理解), 자신의 고유한 지평(地平)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다. 이 입장에서는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

35) 이 문제는 일찍이 ‘문화’ 개념의 발생과 관련된다. 우리가 ‘문화’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신이 만든, 신에 의해 주도되는 문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서 벗어난 인간이 만든,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문화를 뜻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서의 창세기 창조신화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점에서 헤르더나 칸트, 그리고 카시러는 문화를 인간이 만든 창조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계속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화의 양상 또한 개별적일 수밖에 없으며,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문화는 그런 점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고 있는 ‘지금 여기’(now and here)를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이는 인간의 유한성(有限性)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는 태도이다.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해석학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학적인 태도가 문화비평에 적용될 경우, 우리는 ‘자민족(自民族) 중심주의’ 혹은 ‘자문화(自文化) 중심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유명세를 얻고 있는 문화인류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다. 예컨대 베네딕트(R. Benedict)는 방금 얘기한 이러한 해석학적인 측면을 문화연구에 접목시키고 있다. 그녀는 좀 뉘앙스를 달리하여 인간의 문화는 각기 고유한 패턴, 즉 아폴로형, 디오니소스형, 편집광형으로 묘사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³⁶⁾ 이는 인간에게서 문화는 ‘동일성(同一性)’보다는 ‘차이(差異)’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한 문화의 차이는 발전의 차이, 개발의 차이 등을 포함한 ‘질적인 차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양의 차이, 형태, 엮음새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이러한 문화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문화를 창출해 내는 인간의 삶의 차이, 인간의 사고방식의 한계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홀(E.T. Hall)은 우리가 문화적 속박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³⁸⁾ 홀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을 이루는 모든 측면에 관한 숨겨진 주요 원칙과 표명되지 않은 전제를 밝혀 내야만 한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문화는 전일적이고 계통적이며 고도로 맥락화되어 있기에 외부에서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36) Ruth Benedict, *Patterns of Culture* 『문화의 패턴』 (김열규역), 까치, 1997, 4쪽 참조.

37) 루스 베네딕트, 같은 책, 305쪽 참조.

38) Edward T. Hall, *Beyond Culture* 『문화를 넘어서』 (최효선역), 한길사, 2000, 317쪽 참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 우리 자신의 실존적 한계를 인정하고 인식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문화의 이해나 문화의 해석도 개별문화, 특수문화의 형태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인류의 문화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서로 구별되는 문화, 상이한 문화, 그러한 문화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문화갈등, 나아가 문화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아니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2001년의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서, 2003년의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기독교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간의 전쟁으로 비화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이러한 인류의 미래상을 예측해 본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의 문화, 문화의 통일성에 대해 희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에게서 공동의 문화란 어떤 형태이며, 그러한 문화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통일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³⁹⁾ 이 질문에 대한 이론적 답변을 우리는 역시 해석학에서 이끌어 낼 수가 있을 것 같다.

다시 가다머와 리콰르에게로 돌아가 보자. 가다머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만의 고유한 선판단(先判斷)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지평(地平)⁴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인 지평은 이해 행위 속에서 하나로 융합(融合)을 일으키게 된다. 이해 행위란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만남이란 두 사람 사이에, 즉 나와 타인,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자의 관계 맺음을 뜻한다.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져 그 속에서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해 행위가 이루어진다. 지평

39)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응철, 『문화철학과 문화비평』, 철학과현실사, 2003. 64-84쪽 참조바람.

40) Gadamer, H.G., *Wahrheit und Methode*, J.C.B. Mohr, Tübingen, 1986, 271쪽 참조.

간의 융합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일방적으로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흡수하여 이루어지는 융합이 아니다. 가다머가 말하는 지평융합은 개별 지평이 ‘언제나 함께 동시에’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대화상황을 연상해 보자. 한 사람이 말을 걸면, 그 질문에 대해 다른 한 쪽이 응답하고, 그 응답에 대해 다시금 질문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되다보면, 맨 처음 질문을 한 사람의 지평은 대화가 지속되면 될수록 어느덧 새로운 지평으로 변화되기에 이른다. 그것은 응답을 하는 다른 한 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대화과정 속에 질문자와 응답자가 온전히 참여할 때, 진정으로 그 대화에서는 하나의 합의(合意), 하나의 이해(理解)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법이다. 가다머는 이러한 지평융합(地平融合)을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독자와 작품의 관계에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서 추구하였다.⁴¹⁾

리콥르의 경우는 대체로 가다머의 입장을 수용하는 편이다. 다만, 그는 가다머가 말하는 지평융합에 있어서 그 용어를 ‘친숙화(親熟化)⁴²⁾’라는 말로 대체한다. 리콥르는 우리가 작품을 읽거나 대할 때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텍스트의 이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자신을 이해하는데 있다. 말하자면 작품 앞에서의 자기이해(自己理解)이다. 작품을 앞에다 두고 그것을 읽음으로써, 그 작품은 우리에게 말 걸어오게 된다. 이에 독자는 그 말 걸어옴에 대해 자기식으로 답하게 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친숙화다. 친숙화 과정에서 리콥르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작품이나 텍스트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 걸어오고 있기에, 독자인 우리 스스로가 우리만의 환상에서 벗어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지평에서 벗어나 텍스트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텍스트 앞에서, 세계 앞에서의 독자의 자기

41) 가다머의 해석학에 대한 이해는 신응철, 「해석학과 문예비평」, 『철학연구』 제54집, 2001년 가을호, 255-271쪽 참조.

42) Ricoeur, Paul.,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The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Fort Worth, Texas, 1976, Sixth Printing, 91쪽 참조.

변화, 자기변신이 전제될 경우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친숙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된다.⁴³⁾

이러한 가다머와 리콤폴트의 입장은 하이데거의 이해의 선구조(先構造)⁴⁴⁾에 빚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해의 선구조에 대한 하이데거의 설명은 그의 *Sein und Zeit* 『존재와 시간』 제1편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분석, 제32절 ‘이해와 해석’에서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이해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앞선 구조가 있는데, 말하자면, 선취(先取), 선견(先見), 선과악(先把握)에 근거해서 이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인식에 있어서 아무런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본질 직관을 해야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 후설(E. Husserl)의 견해를 뒤집어엮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의 인식이나 이해에 있어서 무전제적(無前提的) 인식이나 이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하이데거의 선언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이해는 이해의 선구조에서 비롯되는 ‘해석학적 순환’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인식 방식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가다머나 리콤폴트 둘다 하이데거의 이러한 측면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화상대주의, 문화적 상대성에 근거한 문화비평의 이론적 근거를 해석학의 논의를 토대로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해석학에서의 최종 단계는 ‘상호이해(相互理解)’에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지평융합’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든, 아니면 ‘친숙화’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든 간에 말이다. 어쨌거나 해석학적 방식을 문화비평에 활용하게 되면, 문화 상대성에서 출발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보편성, 보편문화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학적 방식이 문화연구와

43) 리콤폴트의 텍스트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는 신응철, 『해석학과 문예비평』 (예림기획, 2001.)의 제2장, 55-82쪽 참조.

44) Heidegger, Martin., *Sein und Zeit*,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 1998, 206-221쪽 참조.

해석, 그리고 비평에 있어서 근간(根幹)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해석학적인 논의 틀을 문화비평 영역에 적용할 때 문화비평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한다. 그래서 해석학적인 방식의 문화비평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한 문화비평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세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해석학적 문화비평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원리가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좁게는 국내의 인문학 교육의 현장에서도 즉각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필자는 문화철학자 카시러(E. Cassirer)가 제시하는 상모적 지각방식(相貌的 知覺方式)에서 찾아내고자 한다.

3) 문화이해를 통한 인간이해에로

필자가 해석학적 문화비평의 과정과 원리를 카시러의 상모적 지각방식 혹은 상모적 세계관에 근거해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문화이해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문화이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이해에로 나아가기 위한 틀을 카시러 자신이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모적 지각방식이란 무엇인가?

상모적(相貌的 physiognomic) 지각방식이란 카시러 문화철학에 등장하는 핵심 용어로서, 나 자신이 얼굴을 지니고 있듯이, 타인도 얼굴을 하고 있고, 자연 대상물들도 모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는 지각방식이다.⁴⁵⁾ 내가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내가 감정

45) 신응철, 『카시러의 문화철학』, 한울출판사, 2000. 225-226쪽 참조.

(感情)을 갖고 있는 존재며, 이는 곧 생명(生命)을 지닌 존재라는 뜻이다. 내가 생명을 지닌 존재이듯, 타인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 동물, 식물, 바위, 나무, 등등 이 세상의 모든 존재자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말하자면, 나 자신이 타인을 대하건, 동식물을 대하건, 자연대상물들을 대하건 간에, 내가 대하는 모든 대상들을 생명을 지닌 존재자로서 인식하고, 지각하는 태도가 바로 상모적 지각방식이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상모적 지각방식에 낯설고 서툴지만, 인류 문화의 초기 단계에 살았던 원시인들은 누구나 이러한 상모적 지각방식에 익숙해 있었다는 것이 카시러의 설명이다. 오늘날도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의 삶의 방식에서, 그리고 사물들을 대하는 시인(詩人)들의 지각방식에서 이러한 상모적 지각방식을 엿볼 수가 있다. 어린아이들이나 시인들은 인간에게서는 물론 사물들에서도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의 연대의식에 근거해 공감적(共感的) 사유를 공유하고 있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상모적 지각방식이 문화비평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비평의 궁극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를 떠올려 본다면, 문화비평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현상을 비판하고, 문화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문학에서의 문화연구, 문화비평은 문화현상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문화를 만들어내고 향유하는 인간, 바로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 논리적, 분석적 사유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자신이 상모적 지각방식을 회복할 필요가 매우 시급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효과적인 인문학 교육은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의 하나로서 해석학적 문화비평을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위에서 우리는 해석학적 방법론을 통한 문화비평이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분야로 왜 필요한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의를 지닐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필자가 해석학적 방식을 통해서 문화비평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항상 그 목표가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상호이해, 지평융합, 친숙화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해석학적 태도를 취할 때, 어떠한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로써 대할 수 있게 된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나 아닌 타인을, 타자를, 나의 문화가 아닌 남의 문화를 인정하는 태도며, 또한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작게는 그의 문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지만, 넓게 본다면, 그것은 인간인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해석학적 문화비평의 원리와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인간관)이 국내에서의 인문학 연구와 인문학 교육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필자의 이러한 일련의 제안이 국내의 인문학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특별히 효과적인 인문학 교육을 위한 인식전환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Benedict, Ruth., *Patterns of Culture*(『문화의 패턴』(김열규역), 까치, 1997.)
- Bernstein, Richard J., *Beyond Objectivism and Relativism; Science, Hermeneutics, and Praxi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3.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정창호외 역), 보광재, 1996.)
- Cassirer, Ernst., *The Logic of the Humanities*, translated by Clarence Smith How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0.
- Cassirer, Ernst., *Zur Logik der Kulturwissenschaften*, Göteborg, Wettergren & Kerbers Forlag, 1942.
- Gadamer, H.G., *Wahrheit und Methode*, J.C.B. Mohr, Tübingen, 1986.
- Hall, Edward T., *Beyond Culture* (『문화를 넘어서』(최효선역), 한길사, 2000.)
- Heidegger, Martin., *Sein und Zeit*, (『존재와 시간』(이기상 역), 까치, 1998.)
- McLuhan, Marshall., *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New York: Mentor, 1964). (『구텐베르크 은하계 -활자 인간의 형성-』(임상원역), 커뮤니케이션스북스, 2001.)
- McLuhan, Marshall.,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McGraw-Hill, 1964).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박정규역), 커뮤니케이션스북스, 1997.)
- Ricoeur, Paul.,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The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Fort Worth, Texas, 1976, Sixth Printing.
- White, Leslie A., *The Science of Culture: A Study of Man and Civilization*. (『문화과학인간과 문명의 연구』(이문웅역), 아카넷 2002)
- 강내희, 『지식생산, 학문전략, 대학개혁』, 문화과학사, 1998.
- 김 균, 「마셜 맥루한의 커뮤니케이션 사상」, 『현대사상』 창간호, 민음사, 1997.
- 김영민, “우리 근대성과 인문학의 과제”, 『현대사상』 제2호, 민음사, 1997년 여름.
- 김용환, 「문화학에서의 인문학: 문화인류학적 제언」, 『인문비평』

창간호, 월인, 2000.

도정일, “정보-지식-사회, 그리고 한국 인문학”, 『인문비평』 창간호(2000)

도정일, 김상환, 정과리, 정수복, “무엇을 할 것인가? 문명사적 전환기, 인문학의 전망과 과제”, 『현대사상』 창간호, 민음사, 1997.

백승균,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인문비평』 창간호(2000).

신응철, 『문화철학과 문화비평』, 철학과현실사, 2003.

신응철, 『카시러의 문화철학』, 한울출판사, 2000.

신응철, 『해석학과 문예비평』, 예림기획, 2001.

유초하, “인문학의 내재적 효용과 미래적 임무”, 『인문비평』 제3호(2002).

이진우외, “우리나라 인문학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인문비평』 창간호(2000)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협의회, 『인문비평』 창간호, 월인, 2000

【Abstract】

A new study of Humanities for the
effective education of Humanities

Shin, Eung-Chol

We live in the era of information and culture on one hand, but live in the era of crisis of humanities on the other hand, especially in terms of research and education of humanities in Korea. So, In this paper, I will suggest a new study of humanities for the effective education of humanities. That is, I call it the hermeneutical criticism of culture.

In order to discuss hermeneutical criticism of culture, we will deal some contents as follows.

First, We will identify the situation of crisis of humanities in Korea.

Second, We will discuss the concept of culture in humanities, and recognize the need of research of culture.

Third, What is the hermeneutical criticism of culture?

Fourth, What is the aim in the hermeneutical criticism of culture?

Finally, We will discuss the significance of the hermenetical criticism of culture in terms of the crisis of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Humanities in Korea.

Key words : Humanity, Hermeneutics, Hermeneutical criticism,
Culture, Criticism of culture.